

# 전남도-효성, 그린수소 산업 육성 맞손

### 1조 투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양질 일자리 창출

전남도는 24일 효성과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효성은 ▲ '그린수소 에너지 섬' 수전해 설비 및 그린수소 전주기 인프라 구축 ▲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수소 전용 항만에 필요한 액화수소 공급시설 설치 ▲ 부생수소·그린수소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설비 실증사업 및 액화수소 해상 운송 실증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

효성은 중장기적으로 총 1조 원을 투자한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20만 톤을 생산해 주요 산업단지나 집중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전남지역에 해상풍력발전 조립 공장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그린수소 저장·활용을 위해 연간 1만 톤의 액화수소 플랜트 2개소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도내 주요 지역 9곳에 설치한다.

효성의 그린수소 사업이 본격화하면 오는 2031년까지 전남도가 구상한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효성이 수소산업 장기비전을 통해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인 그린수소에 주목해 수소 전주기 사업 추진에 앞장서온 효성의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려는 전남과 '수소 전주기 글로벌 일류기업'을 꿈꾸는 효성의 비전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수소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효성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총동원해,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과, 전남의 국가 그린에너지 메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청정 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는 그레이·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대규모 해상풍

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 개발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그린수소 메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 계획은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19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11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그린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천정배, 미래차 등 '호남 공약' 반영 요구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천정배 전 국회의원(사진)이 24일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권 경제발전 방안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신산업을 기존 낙후 지역에 집중 배치·진흥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의 호남권 경제발전 공약에는 국가 차원의 미래차, 에너지, AI(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종합 발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호남권이 최적 입지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정치적 명분을 갖추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



터'를 개설하고 대선 공약을 발굴해왔다.

2016년 분당 때 민주당을 떠난 천 전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대선' 조치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천 전 의원이 복당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이후 (정치적) 역할에 대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번 총선 때 당락과 관계없이 마지막 출마라고 선언했다. 광주 시장 선거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기철 기자

## 정기 브리핑

### 서삼석, 쌀 역공매 방식 수매 비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전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 톤 중 선제 물량 20만 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했다. 현장에서는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 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 의원은 "식량 자급의 문제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전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 "비상 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 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 광주에너지파크, 랜드마크 '우뚛'

### 4개 전시관·9개 외부 전시물 운영... AI 스마트에너지 체험

광주시가 지난해 조성한 에너지파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에너지파크는 광주시가 2045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성이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 상무시민공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쉽고 다양하게 에너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 및 외부 전시물을 선보이면서 개관 이후 월 평균 약 500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관은 크게 ▲전기의 가치와 에너지 산업 발전을 소개하는 '에너지홀' ▲기후환경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소개

하는 '그린 플래닛' ▲4차산업 기술과 전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보여주는 '스마트 에너지' ▲미래 에너지에 대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필로그'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전시물은 ▲에너지 체험 놀이시설 ▲솔라트리 ▲에너지 다리 ▲에너지 분수 ▲에너지파크 사인물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벤치 ▲에너지를 형상화한 지역작가들의 예술조형 작품 등 총 9종이다.

더불어 에너지파크에서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하며, 스마트홈 AR체험, 드론,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를 접할 수 있다.

또 2월에는 전시관에 신재생에너지 대표 설비인 태양광 발전시설(50kW)을 새롭게 구축해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식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월에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보플랫폼 현황판을 설치해 지역 4대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열)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민참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시관 내외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올하는 ▲'에너지라벨러(해설사) 양성' ▲'에너지전환돌레길 견학' ▲'에너지의 날(에너지를 바꾸는 시간) 개최' 등 3개의 시민참여 대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선우 기자

### 여영국, 붕괴 현장 방문 "정몽규 모든 책임 다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사진)는 24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찾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붕괴 사고가 터지자 회장직을 사퇴하고 도망갔다"며 "모든 실종자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이후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를 방문해 119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 장연주 시의원, 광주시장 출마 선언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사진)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 연이어 일어난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일당 독점에 따른 지방자치 행정의 무능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일당 독점으로 무너진 자치 행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특정 정당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광주 정치의 대전환에 필

요한 새 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